

여수 소제지구 공영개발 놓고 갈등 증폭

주민들 저평가된 보상이 반발 시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공영개발 즉각 중단하고 민영개발 제안 수용하라” 촉구

공영개발 취소하라 여수 소제지구 택지 개발 주민들 기자회견 반발
여수시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7일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빈)와 주민들이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는 소제지구 공영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을 위한 민영개발 제안을 받아 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정, 인근 시세보다 최대 5배 이상 저평가된 보상으로 보상협의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더욱이 여수시는 대다수 주민·지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통장이 장을 시켜 마을 경로당에 소수의 주민들만 모아 놓고 수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변명과 거절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4~5 가구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과 지주들은 여수시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았고 사업자와 일부 토지주만 시청 권유를 받아들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주민 전체 수용 설명회와 시장 면담요구 등 합리적인 대화를 거절당한 대다수 주민·지주들은 여수시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공영개발 중단과 민영개발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소호동 41만7654㎡에 이르는 소제지구는 소호 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



17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소제지구 공영개발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순빈 여수시 소제지구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이 공영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을 위한 민영개발을 받아 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있는 마을(소제·음달)로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수시가 수차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돼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

서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324억원에 달하며 소제마을(41만8000㎡) 부지에 주거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용지 1만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20만4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의 보물 기증하세요

내년 시립박물관 착공 앞두고 시민 유물 기증 운동 전개

여수시가 2020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시립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유물 기증 운동을 나선다.

대상은 여수 관련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로 지역 제한은 없다. 수집 유물은 여수의 고고·역사·미술·민속과 근·현대사, 학교, 산단, 그밖에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다.

자기, 그림, 글씨, 고서, 고문서, 고가구, 사진, 의류 등이 해당한다.

유물은 무상으로 기증하고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감사패와 증서를 수여하고,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패를 게시한다. 유물을 전시할 경우 기증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유물 도록과 기증백서도 제작·배부한다.

기증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여수시 문화예술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고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민의 자부심과 애착이 묻어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기증 유물은 박물관 개관 이후 전시·연



구·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기획전 작품으로 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립박물관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됐고, 지난 7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받았다. 현재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해 국회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낭만포차 다시 연다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다음달 1일 영업 시작

‘여수 밤바다’와 함께 전국적인 명소가 된 낭만포차가 10월 1일부터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화동 중포해양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한 낭만포차는 관광객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으나 쓰레기와 주차, 소음 문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전을 추진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수시는 올해 이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거북선대교 아래로 옮기기로 하고 교량 관리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과도 협의를 마쳤다. 여수시는 이전 사업비로 교량 하부 진입도로를 포장하고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다.

10월부터는 낭만포차 4기 운영자 18명이 영업을 시작한다.

여수시는 낭만포차 들어선 거북선대교 아래로 유람선이 오가고 여수 밤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28·29일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맨손 고기잡기·낭만음악회 등 다채

여수시 소라면 장척마을에서 28일과 29일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2회째를 맞는 갯벌노을 체험행사는 개막행사와 체험행사, 문화행사로 나뉘어 펼쳐진다.

개막행사는 식전축하공연과 개막식으로 진행되며, 체험행사는 개매기, 바지락 캐기, 망둥이 낚시, 맨손 고기잡이 등 알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화행사는 풍어제, 당산제, 길놀이, 노을가요제, 노을낭만음악회 등이 열린다.

시는 개매기 체험 참가자 편의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체험장을 행사장 주무대 앞으로 옮기고 체험비도 5000원으로 낮췄다.

여수와 순천 지역 학생이 참여하는 댄스 경연대회와 여수시 아마추어 밴드의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또 아이들을 위한 갯벌 놀이터와 모험등 포토존, 바다음식 체험관, 소원풍등 날리기 등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행사 첫날인 28일은 오전 9시 30분 풍어제를 시작으로 당산제, 길놀이가 이어진다. 체험마당에서는 오전 9시부터 대나무 망둥이 낚시를 할 수 있고, 오후 1시 바지락 캐기와 맨손 고기잡이 체험이 시작된다.

간조 시간인 오후 3시부터는 복게도 가족사냥 경기체험과 보물찾기를 즐길 수 있다.



여수시 소라면 장척마을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여수시 제공)

이어 오후 5시 장척마을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노을낭만음악회와 여자만 불꽃쇼가 진행된다.

29일 체험행사는 전날 행사에 개매기 체험이 추가된다. 개매기 체험은 간조 때 그물에 걸린 생선을 직접 손으로 잡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송어, 감성돔, 농어가 주 어종이며, 운이 좋으면 민물장어와 대형 노랑가오리도 만날 수 있다.

고등학생 이상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

를 내면 장갑과 그물망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장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은 참가자가 미리 지참해야 한다.

공연 행사는 오후 1시 댄스대회 본선을 시작으로 버스킹 공연, 축하공연, 노을가요제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시는 소라초등학교 사곡분교→행사장, 노을리다펜션→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40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관광 홍보 웹툰 공모...30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여수의 역사, 설화, 관광 명소 등을 모티브로 한 여수 관광 홍보 웹툰을 공모한다.

전국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1인 1 작품 응모가 원칙이며, 해당 40컷 내외, 총 5화 분량으로 이미지 파일, 응모지원서, 시나리오를 여수시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 분량이 많아 망설이는 작가를 위해 총 5화 중 3화까지만 접수하고, 나머지 2화는 당선작에 한해 받을 예정

이다.

시상금은 최우수 1명 500만원, 우수 1명 300만원, 장려 2명 각 2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이다.

응모지원서는 여수시 관광문화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입상작은 관광 웹툰 책과 웹드라마 시나리오에 활용할 계획이며 저작권은 출품자와 여수시가 공동 소유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독서의 달 맞아 내일 ‘별 헤는 밤 시 낭송회’

환경도서관 옥상서 개최

여수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9일 오후 7시 문수호 환경도서관 옥상에서 ‘별 헤는 밤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내 영혼을 움직인 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 낭송, 작은 음악회, 별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시 낭송 회원과 시민 참가자는 감미로운 시로 가을밤의 낭만을 자아내고

시립국악단의 무용, 색소폰 연주, 노래 등으로 구성된 작은음악회는 행사장 분위기를 띄운다.

고령층 전 중앙영교 교사는 별 이야기로 참석자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한다.

시 낭송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